

육지 가뭄에 병드는 전남 바다

민물 유입 안 돼 짜디 짠 바다
플랑크톤 등 먹잇감도 줄어
낙지·김·꼬막 등 생산량 급감
생태계 '흔들' ... 어민 소득 감소

극심한 가뭄이 바다 생태계마저 흔들고 있다. 바다로 유입되는 강이나 호수, 지하수와 같은 민물과 빗물이 급감하면서 연근해의 해수 염도가 높아진 데다 미세알·플랑크톤 등의 먹이가 사라진 탓이다. 이로 인해 천혜의 수산물 보고인 전남의 갯벌과 바다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낙지, 꼬막 등 주로 갯벌에서 나는 두족류, 패류와 함께 염도의 영향을 받는 김까지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19일 강진군 수협, 보성군 수협 등에 따르면 올해 갯벌에서 낙지가 사라져 낙지 위판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강진군 수협의 경우 낙지 위판고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간 105만 마리로 전년 2022년 3월부터 1년간은 66만 마리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가뭄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 낙지가 바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의 식탁에 오르는 낙지(대) 한 마리의 소매 가격은 평년에는 6000~7000원선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1만2000~1만4000원까지 오른 실정이다. 최성철 강진 사초마을 이장은 "6월 금어기까지 낙지 조업을 해야 하는데 배를 띄워봤자 인건비, 기름값도 안 나와 아예 운항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놀다가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듯하다"고 토로했다. 마을공동어장에 낙지목장을 조성한 보성 석간마을에서도 갑자기 낙지가 안 잡혀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전남 수산물인 김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43만에서 올해는 55만으로 12만t을 더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화된 가뭄으로 인해 해수 염도가 높아지면서 김이 성장하지 못한 바람에, 지난 10일 현재 26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t)에 비해 오히려 15%가 감소하고 말았다. 전남 해역에서는 주로 잇따라돌김, 모무늬돌김, 일반김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해안가에 붙어 자라는 돌김류는 생



“야구의 봄이 왔다” ... KIA 시범경기 인파

휴일이자 봄 기운이 완연한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시민들이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시범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산량이 조금 줄었으나 가장 생산 규모가 큰 일반김 생산량은 한층 더 감소했다. 2022년 3월 10일에는 일반김 생산량이 38만t을 넘었으나 올해는 21만t에 그치고 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물김 생산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특산물, 여자만에서 나는 꼬막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크기가 줄어 어민들이 울상이다. 다 큰 성체가 1.5cm에도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맹이가 비어 있는 상태로 부지기수다. 여수 안포마을은 올해 피꼬막 작업을 아예 포기했다. 이희한 어촌계장은 “한 번 작업을 하면 10여 명의 어민이 참여하는데, 인건비도 건지고 못하고 매년 손해만 난다”며 “이제 수산물 생산보다는 가공이나 관광 등 다른 방식의 생산이

나 이윤 창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의 가뭄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난해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은 227.3일로 1973년 이후 최장이다. 지난해 6-8월 남부지방 강수량은 483.3mm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704.0mm)을 크게 밑돌아 전남 해역으로 들어오는 민물의 양 역시 그만큼 적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가뭄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민물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바닷물의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해 수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는 돼야 가뭄에 의한 전남 수산물의 피해 여부가 집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한, 美 B-1B 한반도 진입 직전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북한은 B-1B가 한반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국방부는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7일차인 19일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다.

미 본토의 B-1B가 한반도에 진입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8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B-1B는 11시30분쯤 한반도 작전구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알립니다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제68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접수:음악·무용·국악 4월 6일(목)~12일(수), 미술·작문 7월 3일(월)~6일(목)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인 '제68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립니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낸 대회입니다.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 접수방법: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
- 경연일정: 대회의장 및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62-220-0541

光州日報社

변호사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유한)맥]은 이번에 서울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퇴임한 이은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높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3.

법무법인(유한) 맥

구성원 소개: 박강희, 조재건, 서정암, 문병진, 구희승, 권오성, 신병섭, 차현영

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유한) 맥 4층
대표전화: (062)232-8800
업무개시일: 2023.3.6.
개업식일시: 2023.3.23(목) 14:00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맥]에서 대표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전남 광양, 광주 동산초, 동성중, 광덕고 졸업
-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89학번)
- 사법시험 40회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서울고검, 춘천지검 인권보호관
-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 창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공판심무부 부장검사
-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법무법인(유한) 맥 대표변호사 이은 강 올림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간인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피부 실험 결과(49 후 사용 분기)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3일

www.sulwhasoo.com • Customer Care Center: 060-023-5454